

방재시험소의 位相

방재기술향상과 보험산업의 과학화, 방화관련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방재시험소를 설립한지도 어언 3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시험소를 아껴주신 방재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기간동안 시험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 방재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화기를 비롯한 10개품목의 방화용품에 대해서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88. 3. 8),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는 건축구조부재 내화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88. 9. 10) 받는 등 국가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아 관련 시험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며, 자체 계획에 따라 국내·외 방화제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지기 등 6개 분야에 대한 품목별 성능시험 연구를 이미 2년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 의뢰시험은 '88년 11월말 현재 750건을 실시하여, 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시험의 대부분이 제품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나, 수출보증을 위한 것도 상당수 있어 저희 시험소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재기술보급은 '86년 450건, '87년 1,399건, '88년 11월말 현재 3,241건으로 증가한 한편, 자료내용에서도 일반 관리분야에서 학문 연구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어 이제 방재업무도 점차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술지원을 제공코자 개소이후에도 건자재 시험설비 등 7억 여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며, 특히 소방용품 인정업무 수행에 대비하여 기초시험장치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화용품의 품질향상 유도를 위한 FILK 인정업무는 인증기준 제정과 함께 동양나이론(주)의 스완카페트, 동방전자산업(주)의 감지기, 대성산업(주)의 포약제, 삼우금속공업(주)의 축압식 소화기 등 총 14품목에 대해 품질보증을 하여주고 있으며,

李 裕 龍
(방재시험소 소장)



앞으로는 건축자재 분야에도 확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러한 성과를 거양한 것은 주위의 많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시험소는 업계에서 꼭 필요하는 업무개발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시험연구소의 업적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실적이 국력신장과 함께 증가되는 것이며, 이는 선진국민만이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연구소의 가장 큰 힘은 기술축적인 것입니다. 이는 기술의 함수를 시간으로 적분한 것으로서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함을 시험소를 아끼는 여러분과 더불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계에서 여러 기회를 통하여 시험소에 요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
- 화재시 예상 최대 손실액을 측정하는 방법
- 방화제품의 경년 변화에 대한 결과
- 양질의 소방용품을 만드는 방법
- 방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대체적으로 연구성 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소의 현재의 입장은 시험업무로서의 역할이 우선하며, 금후로도 당분간은 재정적 여건등에 비추어 연구과제의 효율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불의 형태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점차 다양해지고 불에 의한 피해도 이에 따라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임은 주지하시는 바로서, 수준 높은 제도와 연구가 뒷받침된 선진제국의 화재피해가 후진국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 사회, 과학 등 여러분야의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으며, 이를 전제로한 방재시험소의 위상이 재검토되어 당연히 예견되는 재해의 경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